

대화 기억 대신, 검증 가능한 작업 상태

4개 AI 제작 작업을 실제로 운영하며 만든 파일 기반 워크플로

문제 여러 작업이 같은 공모전을 건드리거나 최신 공고를 놓치면 결과물은 있어도 제출할 수 없다.

탐색

공식 요건

제작

선점·산출물

제출

로그인·전송

보관

증빙·이력

실제 적용 환경

2026. 9. 6. 기준 공모전 폴더 308개
제작 담당 1·2·3·4의 고유 작업 공간
현재 단계는 작업상태.md 한 곳에 기록

제가 정한 핵심 규칙

시작 전 고유 폴더로 선점
공식 원본과 제출본을 분리 보존
완료 조건은 경로·해시·검수 기록

AI에게 “결과물 하나”가 아니라 “누가, 어떤 근거로, 무엇을 검증했고, 다음 담당은 무엇을 할지”까지 남기게 했습니다.

한 번의 프롬프트를 작업 절차로 바꾸기

ChatGPT Codex가 다음 실행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상태를 파일에 남김

1 공식 근거 읽기

공고·첨부·양식을 먼저 읽고 마감·분량·권리를 대조

2 고유 담당 선정

대기 폴더를 제작-4 전용 경로로 옮긴 뒤에만 수정

3 제작과 검증

문서·코드·표·그림을 만들고 구조·수치·시각 검수

4 증거와 함께 인계

파일 목록·크기·SHA-256·한계를 기록하고 제출대기로 이동

개인화 포인트

제작 담당은 외부 접수를 하지 않고, 제출 담당만 로그인·동의·전송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현장 확인·서명·접수는 완료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3쪽 초안을 최신 기준의 2쪽 제출본으로

공식 출처 충돌 발견 → 재제작 → 재현 검증 → 안전한 인계

처음 확인한 학회 안내

A4 2~3쪽



주최 협회 최신 첨부

A4 2매 이내

AI가 2026. 8. 25. 게시된 협회 원본을 추가 확인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3쪽 초안을 2쪽으로 다시 조판하고 표·그림·참고문헌을 유지했습니다.

800

합성 공정 사례

3,200

제약 검사 일정

6/6

재실행 해시 일치

73

인계 파일 식별 검사

좋은 결과만 고르지 않기

후보 비교 방식의 평균 개선을 제시하면서도, 800사례 중 FIFO보다 불리했던 69건을 본문에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동 뒤 전체 재검사

제출대기 인계 뒤 실제 공모전 폴더 308개의 단계와 위치를 다시 검사해 불일치 없이 마쳤습니다.

성과는 “AI가 빨리 써 줬다”가 아니라, 최신 기준·불리한 결과·재현 여부까지 검증 가능한 기록으로 남았다는 점입니다.

대기·진행·완료, 세 폴더부터 시작

공모전뿐 아니라 보고서·콘텐츠 캠페인·개인 프로젝트에도 적용 가능

1

상태 파일 만들기

현재 단계, 담당, 공식 출처, 마감, 산출물, 검수 근거, 다음 조치

2

시작 전에 선점

고유 담당 폴더로 이동해 같은 대상을 동시에 수정하지 않기

3

완료를 증명

파일명·크기·해시와 시각 검수 결과를 함께 남기기

4

역할을 분리

제작과 외부 전송을 나누고, 로그인·동의·서명은 실제 단계에서 처리

책임 있게 쓰기

개인정보는 요구된 항목만 사용하고, 출처 원본을 보존합니다. 합성 자료는 실측값처럼 쓰지 않으며, 실제 수행하지 않은 검토·서명·접수를 완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